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의미와 시사점

전용식 연구위원

2016년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제도개선 이후 하락하던 손해율이 최근 상승세로 전환됨. 최근의 손해율 상승은 여름 강수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안정적이던 손해율 추세와는 대조적이어서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손해율 상승이 보험료 인상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대물보상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5.4%p 하락함

- 2015년 10월 13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 2016년 4월 계약자부터 개정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등이 적용됨
- 이외에도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및 규범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 개선, 그리고 고가수리비 특별요율을 신설함¹⁾

■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는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손해율 추세와 대조적임

- 2017년 8월까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5년과 2016년 동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월에서 4월(77.1%)까지의 하락세에서 5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됨
- 여름 휴가철, 장마 등 계절적 요인일 수 있으나 2016년 5월에서 8월까지 손해율이 80% 수준에서 안정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임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5. 11. 18), “고가수리비·렌트비 등 고가차량이 야기하는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차량 운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표 1〉 자동차보험 월별 손해율 현황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2015	86.4	85.1	85.9	86.1	84.5	84.1	85.3	87.3	90.6	88.5	92.0	97.2	87.8
2016	84.0	83.1	79.4	84.4	82.5	80.0	80.6	80.2	78.8	84.7	85.7	91.6	83.0
2017	83.9	76.5	74.1	77.1	77.6	77.4	81.1	79.4	-	-	-	-	78.4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최근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제도개선 이후 보험료 인하가 원인일 수 있음

- 자동차보험의 손실 감소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
 - 대형 3사는 2016년 12월 31일, 2017년 8월 6일과 16일, 2017년 6월 1일에 최소 0.8%에서 최대 2.7% 보험료를 인하함²⁾
 - 대물배상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손실은 2015년 1조 1,011억 원에서 2016년 3,418억 원으로 감소³⁾
- 일반적으로 손해율은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눈 값으로 정의되는데 손해율 상승은 손해액 증가세가 보험료 증가액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손해율 상승은 주어진 보험료 수준에서 손해액이 보험료보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이미 소진되었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손해액 감소 크기만큼 보험료를 인하할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인한 손해액 감소는 보험료 인하 여력으로 전환됨
- 그러나 2016년 12월부터 지속된 손해보험회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제도개선 효과가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제도개선 효과가 보험료 인하로 소진되어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는 현상은 2010년 12월 자동차보험 종합대책 이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감소한 후 2012년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다시 영업적자가 증가했던 현상과 유사함

- 2010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9.9%이었으나 2011년 손해율은 82.3%, 2012년 84.0%를 기록한

2) 매일경제(2017. 7. 17), “손보 빅3중 차보험료 첫 인하”

3)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후 2012년 보험료 인하로 2013년 86.8%, 2014년 88.4%로 상승

– 기승도·이경아(2014)는 2012년 4월 기본보험료 인하 및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인하 경쟁, 2010년 12월 자기차량손해담보 비례공제제도의 영향 감소 등으로 2013년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함⁴⁾

– 기승도(2013)에 따르면 2012년 4월로 추정되는 기본보험료 2.5% 인하, 사고자 특별할증률 인하 1.0% 등으로 대당보험료가 5.0% 감소함⁵⁾

● 2011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4,070억 원으로 2010년 1조 5,369억 원에서 크게 줄어들었으나 2012년 6,333억 원, 2013년 9,415억 원으로 증가함

– 제도개선 이후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경미사고 보험금 증가 때문임

■ 자동차보험 보상제도개선 효과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제도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

●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 안정과 손해보험회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손해율 변동성 최소화가 수반되어야 함

● 보험금(손해액)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보험금 원가관리와 비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 대인보험금 증가의 원인인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제도,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kiri**

4) 기승도·이경아(2014. 2. 10), 「2013년 4월~11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분석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5) 기승도(2013. 4. 15), 「FY2012 자동차보험산업 성장률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